

현미경다발혈관염 환자에게서 발생한 척추 경막하 출혈 1례

단국대학교병원 내과

이도현, 조종태, 윤성철, 서원용, 이은경

Spinal Subdural Hemorrhage in a Patient with Microscopic Polyangiitis

Do Hyun Lee, Jong Tae Cho, Seong Cheol Yun, Won Yong Seo, Eun Kyoung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ankook University Hospital

현미경다발혈관염은 전신혈관염으로 조직학적으로 작은 크기의 혈관의 괴사성 염증을 나타내며 신장 침범이 흔하다. 이 질환은 ANCA associated vasculitis (AAV)의 하나로 약 90%에서 myeloperoxidase (MPO)에 특이적인 ANCA가 양성을 보인다. 중추신경계침범은 매우 드물며 자기공명영상에서 뇌막의 조영증강이 보이는 경우가 5-10%에 그친다. 이에 저자들은 현미경다발혈관염을 진단받은 63세 여자 환자에게서 발생한 척추의 경막하 출혈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환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던 분으로 전신쇠약감 및 식욕부진으로 본원 방문 일주일 전 미국 병원에서 신기능 저하 및 단백뇨, 혈뇨에 대해 신조직 검사를 시행 받았다. 본원 입원 당시 BUN 95.9 mg/dL, creatinine 6.46 mg/dL, 혈색소 10.7 g/dL, 소변 단백/크레아티닌 비 (g/g)은 1.8 이었다. 소변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고배율에서 30-99개 관찰되었다. 입원 후 요독증에 대해 혈액 투석을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전신쇠약감과 식욕부진은 호전되었으며 혈압도 안정적이었다. 입원 6일 째 밤 10시경 환자는 심한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상승하였다. 대동맥박리를 의심하여 대동맥 전산화 단층 촬영을 시행하였으나 대동맥박리는 관찰되지 않았다. 새벽 4시경 하지의 감각 이상에 이어 근력 저하를 보였으며 척추 자기공명영상을 시행하였고 경추2번-6번 및 흉추 5번-9번에 척수를 압박하는 경막하 출혈을 확인하였다. 환자는 응급 수술로 흉추의 혈종을 제거하였으나 하지 근력 저하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어 미국에서 시행한 신조직 검사의 정식 결과가 도착하여 이를 확인하였고 검사 결과에서 광학현미경에서 15개 중 7개의 사구체는 완전히 경화되었고 나머지 사구체에서는 부분적 괴사성 혈관염을 동반한 초승달사구체를 보였다. 면역형광현미경에서 음성 소견을 보였다. MPO ANCA는 양성이었으며 이에 현미경적다발혈관염으로 진단하여 cyclophosphamide 및 고용량 glucocorticoid를 투여 하였다. 입원 45일째 혈청 creatinine은 4.1 mg/dL로 감소하여 투석을 중단하였다. 입원 90일째 휴지에 묻어나는 정도의 객혈을 보였으며 이에 혈장 반출술 및 glucocorticoid 증량하였으나 91일째 대량의 객혈을 보였고 폐동맥색전술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성호흡곤란증후군에 이어 95일째 사망하였다.

Key Words: 현미경다발혈관염, 척추 경막하 출혈

Microscopic polyangiitis, Spinal subdural hemorrhage